

영천시, 가장 살기 나쁜 도시 전국 4위 불명예... 노후·교통·소방·소득 최하

사회안전지수, 전국 184개 지자체 중 181위
市슬로건-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사회안전지수 개선에 실패했다. 전국 184개 지자체 중 올해도 181위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싫은 도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넷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시·군·구 대상 4개 분야 정량지표를 토대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2023 사회안

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3)가 10일 공개(확인)됐다.

사회안전지수 설문 조사 표본이 적은 45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영천시는 평점 49.48점으로 전국 184개 지자체 중 181위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도시 4위에 올랐다.

세부 항목으로는 경제활동(129위)·생활안전(182위)·건강보건

(169위)·주거환경(58위) 4개 분야 14개 평가 항목 중 주거환경(57.75) 분야 만 제외하고 모두 50.00점대 이하로 대기환경·인구변동·문화여가 등 5개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 모두 100권 밖이다. 특히 최하위권 9개 항목은 노후

(35.40) 177위, 교통안전(32.90) 182위, 소방(45.97) 167위, 소득(35.86) 162위, 건강상태(42.02) 173위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모두 E등급을 받아 사회안전지수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정치권 인사 A 씨(62)는 "영천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이라는 슬로건과는 별개로 매년 이같은 사회안전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허상이 아닌 현실적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市 고위공직자 B씨는 "자살

률이 높은 우리 시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안전 지수 개선은 어렵다. 외부에서는 살기 좋은 영천이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성적이 좋지 않은 사회안전지수가 굳어져 쉽게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싫은 도시 1위는 대구 서구(46.48)로 나타났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경기도 성남시(59.39)로 확인됐다.

장지수 기자

본지 필진 임종택 박사, 한국임업진흥원(영천 담당) 그루매니저 선정

5월부터 산림자원 활용 영천 창업자 모집 개시
영천지역 일자리 창출·창업 모델 개발 청신호

올해 새해부터 영천신문 기획 특집 「임종택의 숲과 나무」 연재를 하고있는 임종택 박사(다숲연구소 대표)가 한국임업진흥원 영천지역 담당 그루매니저로 선정됐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지난달 17일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전국 15개 지역에 2023년도 6기 그루매니저 15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루매니저'는 해당 지역(영천)에서 특화된 산림자원을 활용 창업 희망자를 (그루)경영체로 발굴 육

성해 견학·자문·교육·훈련·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체(법인화) 등 실질적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일명 창업 상담사다.

임종택 박사는 다숲연구소를 통해 숲 연구와 산림자원인 보호수 활용에 대한 논문과 생태·환경 그리고 조경 전반에 대한 언론 칼럼과 저서 활동 및 공공기관 귀농·귀산촌 강의를 해왔다.

특히 임 박사는 올해 초부터 본지를 통해서도 「임종택의 숲과 나무」라는 주제로 지속해서 연재해 오면서 영천지역의 자연환경과 숲

의 가치에 대해 꾸준히 그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번 임박사를 그루매니저로 선정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영천지역의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할 책임자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경영체를 만들고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 박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실전 교육을 받은 후 영천 지역 담당 그루매니저로 최소 3년간 지역 자원조사와 그루 경영체 발굴 및 창업지원 등 임·산림 관련 창업 발굴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임종택 박사는 "그동안 숲과 관련한 경험을 살려 영천시의 관광산림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숲 생태와 산림자원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모델을 개발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겠다"며 그루매니저 선정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임 그루매니저는 오는 5월부터 본격 그루경영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천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화 010-5595-2591(임종택)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사진은 임종택 박사, 그루매니저에 선정 ▶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 시민분들의 마음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영천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의원
배수예


의원
김용문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김종욱


의원
김선태


윤리특별위원장
권기한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상호


운영위원장
박주학


부위원장
우애자


의장
하기태


영천시의회
YEONGCHEON CITY COUNCIL



영천기독교 성도들 뿔났다 “부활절예배 市, 군부대유치 홍보 이용” 논란

행사 이틀 전 보도자료 배포... 실제 보도됐다
1200명 성도 참석, 900명으로 축소된 영천시
성도들, "군부대 유치 위한 부활절 예배 아냐"
연합회, "영천시 일방 보도자료 배포에 항의"

영천시와 영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우기진 목사)가 지역 기독교 성도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성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를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12일 복수의 성도들에 따르면 "지난 9일(주일) 오후 2시 30분 영천제일교회에서 개최한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 홍보에 이용해 성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훼손했다"는 주장.

또 이들 성도들은 "영천시가 군부대 유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마치 영천지역 전체 교회가 군부대 유치를 위해 부활절 예배를 기획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 기독교인들까지 모독했다"며 이날 "영천시와 기독교 연합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

혔다. 앞서 영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우기진 목사)는 지난 9일 오후 영천제일교회에서 1200여 명의 지역 기독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영천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영천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우기진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장과 연합회 임원, 성도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혀 참석인원도 교회측 주장 1200명보다 축소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날(9일) 부활절 예배가 있기 이틀 전인 7일 「대구 군부대 유치 기원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음 날 보도 중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언론에 배포되고 난 후다.

그러나 9일 행사 후 각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대구 군부대 유치' 연합예배 개최 등의 내용으로 30여 개 이상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 성도들의 부활절예배 훼손 항의가 이어졌다.

연합회 예배 실무관계자는 본지와 의 통화에서 "아침부터 이같은 항의 전화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 영천시가 (보도자료) 일방적으로 그랬다는 말로 듣고 있다. 이 때문에 연합회 측이 공식 (영천시에) 항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장단에서도 성도님들의 (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기로 했다. 영천시에 대한 공식 항의 최종 결정은 회장 목사님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군부대 유치를 위한 부활절 예배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다."고 밝히고 영천시에 대한 공식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축복하는 부활절에 영천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신 기독교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성도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축복의 기운을 받아 대구 군부대 유치를 비롯한 영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담당부서는 "지역 성도 2명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영천발전을 위한 군부대 유치 홍보가 부활절예배에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몰랐다. 저희라도 공식 사과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의도적으로 기획된 군부대 유치 홍보는 아니라"는 답변을 본지에 해왔다.

장지수 기자



영천뽕, 어린이보호구역 불시 주간 음주단속

50대 만취 운전자 적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고 경각심 강조

영천경찰서(서장 이창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불시 음주단속을 펼쳐 만취 운전자 1명을 단속했다.

지난 13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영천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하교 시간대에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수치(0.088%)의 만취 운전자 50대 A 씨(남)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간 불시 단속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先)조치다.

영천뽕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주간 불시 음주단속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조치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경북 엠폭스 첫 환자, 국내 15번째 환자 발생

최근 9일간 국내 8명 감염, 총 16명 확진
해외 이력 없는 3명, 지역사회 확산

경북에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첫 엠폭스(Mpox)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15번째다. 국내 엠폭스 사망자는 아직 없으며 18일 현재 모두 16명이 확진됐다.

경북도는 18일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17일 담당 보건소로 신고한 후 道 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 및 질병 관리청 2차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道는 이 환자의 경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18일) 질병 관리청도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엠폭스 환자 3명(14·15·16번째)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 19와는 달리,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 성접촉)로 전파돼 일상 접촉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감염 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피부 발진 증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엠폭스 의심환자 밀접접촉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상담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엠폭스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엠폭스 감염자 중 지난 8일 전남 거주자로 지역 첫 감염자(6번)가 나왔고, 7번째 환자는 10일 발열과 피부병변으로 의심돼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8번째 환자

는 오한과 피부발진 등으로 보건소 신고로 11일 확인 됐다.

또 14일 대구 A 씨가 해외 여행력 없이 잠복기 내 위험노출력과 의심증상으로 분류돼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지역 10번째 환자다.

11번째 환자는 서울 거주자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13번째 환자는 경남 거주로 2명 모두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다.

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다.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 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

최근 9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8명으로 늘면서 누적 16명으로 국내 감염 확산이 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청소년 선도캠페인]

나에게는 작은 장난
남에게는 깊은 상처

영천시 / 영천경찰서 /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에 벌금 700만원

출동한 경찰도 폭행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북 영천지역 A씨(64세)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9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에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 가량 소란을 피우다 출동

한 경찰관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 동부권 6개 시·군 기업고충해결... 영천에서 간담회 개최

기업해피모니터 235명 활동
지난해 384건 고충 처리
작년~올해 1분기까지
17개사 1조1306억원 투자유치

경북도는 지난 18일과 오는 20일 영천상공회의소와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기업과 소통 강화를 위한 「2023 기업 해피모니터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영천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는 경북 동부권으로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울릉)에 해피모니터 기업, 보조금(지투·국내복귀·유치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신규 및 변경 기

회망기업,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간담회는 투자유치실장의 인사로 시작해 포스텍 유환조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과 챗GPT', 한수원 김규형 부장의 '탄소중립과 RE100', 한국산업단지공단 변경현 과장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제도설명'을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해피모니터는 기업이 직접 제기하는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경북도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경북도 투자기업과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235명의 기업해피모니터가



활동 중이며 지난해는 380여건의 기업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했다. 또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

도를 통해 17개 기업에 1조1306억원을 투자 유치해 1천76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는 경

북 북부권으로 11개 시군(안동, 영주, 문경,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의 관련자가 함께 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특별교부금 5억1300만원 확정

영천 청동초 특별 교실 개축 2억 2100만 원
화산초 외벽 보수에 2억9200만 원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지역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영천시 청동면 ▲청동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화산면 ▲화산초등학교 외벽보수 2억 9200만원이다.

청동초등학교는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 비용으로 그동안 특별 활동 교실이 오래되어 낡고 어수선했던 학생들이 실습·실험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실험과 실습 확대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되어 교육 역량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TK신공항 이전 특별법 13일 국회 통과

구자근 의원, 구미시 공항 배후 도시 성장 기대

TK(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민 최대 숙원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TK통합신공항 이전 건립을 위한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해 온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통과됐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통과된 신공항특별법은 통합신공항 이전 개발계획 수립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국비 지원,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 그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도 포함됐다.

구미시의 경우 구미 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과의 거리가 불과 10km 내외에 불과해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구자근 의원은 기대했다.

구 의원은 "향후 6월경에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미시가 공항 배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영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4.15 부정선거 진실, 다큐멘터리 15일 국회 시사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최승재 의원 주최 『김일성의 아이들』 김덕영 감독, (주)브이오엔 제작 22일 인천 송도 2차 시사회, 3차 시사회는 대구에서 21대 총선 부정 선거 진실 논란 확대 재 점화 불가피



제 21 대 국회의원 총선 (2020.4.15)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시사회는 국민의힘 최승재(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영화제작사 브이 오 엔(대표 김미영)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가 주관해 황교안 전 총리, 도태우·박주현 변호사, 맹주성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작됐다.

해설을 맡은 민경욱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변방의 음모론 취급을 받던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축사 속에서 다큐로 방영됐다는 것은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제도권에 진입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시사회 개최의 공을 3년간 함께

투쟁해 온 애국민들에게 돌렸다.

민 대표는 "이번 시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애니메이션과 연극, 출판 등의 방법으로 국민 주권확보 차원에서라도 문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다큐는 지난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때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각종 증거와 함께 자세히 분석했다. 또, 대만과 독일, 미국의 현지 로케를 통해 부정선거가 비단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세계 공통의 현안임을 나타내 공동 대

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4.15 총선 직후 전국 100여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소송 등이 진행됐지만 6개월 이내에 결론짓도록 한 선거법을 무시한 채 아직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았다.

다큐의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로 로마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받은 김덕영 감독이다.

김덕영 감독은 이날 시사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끝이 아닌 국민주권 회복의 시작이다.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많은 국민에게 4.15의 진실이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사회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영화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정선거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천 송도 '인천컨벤시아'에서 2차 시사회를 갖고 또 대구에서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순준 3차 시사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부정선거 논란의 파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효정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울진군에 공공주도 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

국내 최대 1조 원 규모...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울진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발표 후속
민투 4.3MW 풍력발전기 94기(404.2MW) 전국 최대
청정에너지 확보, 산불예방, 피해지역 복구 지역상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4일 울진군 산불피해 지역 일원에 공공주도 전국 최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공기관·지역주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 변화에 따른 청정에너지 확보와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과 산불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 및 경제 회생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울진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풍황자원 기

초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은 1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공공주도 지역 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도는 울진군 산불 지역 일원에 2023~2027년(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4.3MW 풍력발전기 94기



(404.2MW)로 전국 최대규모 지역 상생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MOU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사업대상지 발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울진군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역 상생 사업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 △경북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와 풍력사업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한수원과 △동서발전, △한전기술 등은 풍력단지 개발 및 건설·운영 및 REC구매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울진지역 대형 산불 원인을 기후 변화로 보고 기후위기 해결책 대응 일환인(풍력) 청정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필요성과 풍력단지 진입로를 산불 진화 입도로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지역 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울진지역 산림대전환 프로

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은 밝혔다.

〈*)집적화단지=지자체 주도로 입지 발굴, 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조성되는 40MW를 초과하는 발전단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발전 사업을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화 모델로 정립해 경북형 공공주도 지역 상생 발전단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형원자로(SMR), 해상풍력,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 에너지산업 선점을 통해 경북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 비전 공유... 전직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전직 민선 시장·군수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전직 민선 시장·군수협의회는 2013년 설립해 42명의 회원이 도·시·군정 정책발전연구, 지역균형발전 연구 등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전직 시장·군수들로부터 민선8기 경북도정 발전방안과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과 자문

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의 주요 역점시책과 2022년 도정 주요성과, 2023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전직 시장·군수들은 "소통의 자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경북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잇는 협치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날 경북의 발전에는 어려웠던 시절 시·군 조직의 리더로 시장·군수 여러분의 지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시대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보생 회장(前김천시장), 김병목 부회장(前영덕군수), 권영택 사무총장(前영양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지수 기자

포항시자봉, 올해 첫 벼룩시장 교환 장터 개장

영일대 바다 시청 일원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오성)는 자원 순환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포항시 벼룩시장 교환 장터'를 개장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터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영일대해수욕장 바다 시청 일원에서 운영되며, 8월 흑서기 및 우천 시는 휴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처음 개장한 올해 첫 벼룩시장에 자원봉사센터는 50개 판매 부스, 150여 명의 판매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권오성 자원봉사센터장은 "포항 벼룩시장 교환 장터는 판매 수익금을 자율 기부할 수 있고 비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포항 시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참여 신청은 매월 1일(온라인)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https://1365.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248-8742~3)로 문의한다. 박한우 기자

청정 경북 위해 250개 지점... 11월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손창규)은 토양오염 예방과 정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 250개 지점을 선정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시군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되며 중점오염원 지역인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전체 251개 지점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7개 지점에서 아

연(Zn), 납(Pb), 카드뮴(Cd), 비소(As)가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40% 또는 70% 이상인 26개 지점을 추가 조사한다.

이번에 조사할 항목은 토양오염원 등을 감안해 납(Pb), 카드뮴(Cd) 등 유해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토양오염물질 23개이다.

시료채취는 지그재그형, 동서남북 4방위형 등으로 지점을 선정해 표토를 채취하며, 지하수수질측정망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 지하저장시설, 매립지는 심토 및 표토까지 채취해 오염대상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해당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토양을 정밀조사 후 정화·복원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한다.

이화성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오염된 토양은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 오염물질 제거가 어렵다"면서 "지하수 오염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효정 기자

청도·고령 공동식단제 시범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청도와 고령지역에 공동식단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2~3개 학교가 한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공동식단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학교별 급식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식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에 교육청은 청도, 고령 2개 지역의 영양교사 협의체 구성 후 오는 6월부터 공동식단제를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타 시군으로 확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효정 기자

포항시, 한류 성지순례 여행지 선정

시티투어버스로 안내
K드라마 순례 코스 신설
단체 예약(☎278-8500)

포항시가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류 성지순례 여행지에 선정되면서 '동백꽃 필 무

렵', '갯마을 차차차' 등 드라마 촬영지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맞춰 지난 8일부터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촬영지 중심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2023년 포

항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

올해 시티투어는 ▶'K드라마 성지순례' 코스 드라마 촬영명소 ▶'팡랜드마크투어(동백, 갯차) 코스 포항의 남·북구 주요 관광지 ▶'팡빨리감기(×2배속) 코스 도심 관광 위주 ▶'맨발로힐링 팡팡' 걸으면서 힐링 ▶'바라는대로 이루리' 코스 관광지 선정코스 등 총 6개 코스(종일/반일/테마)다.

지난해 동백이·갯차 코스로 나눠 K드라마 촬영명소 시티투어를 한 번에 둘러보지 못해 아쉬다는 관광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드라마 촬영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K드라마 성지순례' 코스를 신설했다고 시가 밝혔다.

특히 대학생 및 기업 비즈니스 방문객 15명 이상 단체 예약후 관광객이 직접 나만의 관광코스를

짜서 여행을 떠나는 '바라는대로 이루리' 코스는 업체와 일정 협의 후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

시티투어버스 예약 및 문의는 포항문화관광홈페이지 '팡팡여행'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278-8500~1)로 할 수 있으며, 요금은 종일 코스 기준 성인 6000원, 청소년·수급자·장애인·유공자·경로우대 4000원이다. 박한우 기자

대구·경북 최대 사업 'TK신공항'... 경북은 "세계로 飛上"

영천시, "공항 배후도시 연계사업 사실상 손 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13일 국회 통과
기부 대 양여 국비(차액) 지원, '예타 면제'
경북 시·군 공항 배후도시 연계사업 열풍
포항·경주·경산·김천 등 신공항 특수 기대

TK(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0조 원이 넘는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TK 통합 신공항 이전 건립을 위한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해 온 '광주 군 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 각종 연계사업 개발에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영천시는 공항 배후도시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K(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통과 법안에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이 발생하면 국비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민간 공항은 국토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도록 해 사업 속도에 가속도가 예상되면서 경북도 내 23개 시·군의 연계사업 건의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건국 이래 대구·경북 최대의 역

사 사업인 통합 신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경북도가 주변 배후도시마다 연계 교통망, 물류단지 및 각종 부대 사업과 관련해 상생의 화두를 꺼낸 만큼 지역 각 시·군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공항과 관련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항경제권기반 육성 방안이 따르면 우선 경북 중남부는 공항 물류와 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지도 사진)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공항 활성화 방안, 물동량 및 공항 경제권 확립을 위한 道 자체적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발전계획' 용역 수립을 완성해 확정(발표)을 앞두고 있다. 우선 공항 권역인 군위와 의성에는 공항신도시 스마트항공 물류단지 조성,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 체인 물류센터, 면세물품 전용 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구미·포항·안동·의성 등에는 공항 물류로 곧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무선통신기기, 백신, 농산물 등의 공산품 및 농식품 거점도시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북 영천·김천은 포도, 고령은 딸기 전문 농식품 수출 전문 센터를 만든다. 구미 공동공항물류센터에 상용화주 터미널 및 농·식품 식품기술 물류센터를 구축해 수출품 직접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북도는 수출물동량 확보를 위해 구미 국가 5산업단지와 군위·의성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정해 국내·외 수출기업 및 외국계 물류·제조·유통 기업유치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은 16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지난해 경북도 내 23개 시·군 관련 담당자와 논의해 각 시·군 연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또 공항단에서도 여러 종류의 용역이 진행 중이다. "면서 "영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천시는 현재 통합 신공항 관련 경북도의 자체 배후도시 연계사업 '항공물류 관련 용역 수립' 외에는 어떤 사업도 계획하거나 경북도에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는 당초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영천지역이 유리한 입지조건인데도 지역 농민단체와 일부 강성 시민들이 연합해 통합공항 영천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터라 뒤늦게 공항 이전 특수 과실을 요구할 명분조차 없는 데다 영천시마저

도 이에 공항 연계사업 경북도 건의에 손을 놓고 있다. 영천시 전략정책 관계자는 16일 "경북도에서 각 시·군별 배후도시 연계사업 항공물류 관련 용역 수립 과정에 영천에도 농·식품 수출센터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 외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신공항 연계사업 계획이나 시 자체 회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영천시 고위직 한 간부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 신공항과의 거리가 70km 이상으로 군위·의성 주변을 중심으로 배후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시는 통합 신공항 관련 구체적 연계 발전전략은 일절 없다"고 말해 사실상 신공항 이전 배후도시 특수 효과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군위는 대구 편입과 함께 신공항 핵심 민항터미널을 품에 안고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재탄생하면서 신공항 배후 661만1570㎡(200만 평) 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 공항 복합도시건설로 군 공항과 함께 군인·군무원 가족 1만여 명,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 600여 명 유입, 연 400만 명의 공항이용객 등으로 인구 소멸지역을 벗어나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지수 기자

경북천년숲정원,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

24~25일 개원 축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원장 엄태인)은 연구원 부지 내 조성한 '경북천년숲정원'을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북천년숲정원은 경주 남산 자

락에 위치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역사와 문화적 자원의 풍부한 입지여건으로 2016년부터 사업비 137억원(국비29, 도비108)을 들여 33ha의 규모로 기획·조성됐다. 정원은 현재 임시개방(2022.11.1.) 중이며, 숲해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4·25일,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경북천년숲정원 개원 기념 축제를 개최로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정원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며(동절기 16시) 입장료는 무료다.

또 정원 내 거울숲, 서라벌정원, 숲그늘정원, 버들못정원, 천연기념물원 등 13개의 테마정원이 있다. 연구원은 향후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원내 시민정원사 양성, 작가정원 조성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10ha 이상 면적에 40%이상 녹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에는 구미, 상주, 청송, 울진에 지방정원 4곳에서 이번에 등록된 경주 경북천년숲정원까지 추가되면 5곳이 된다. 박한우 기자

청도 소싸움 축제, 3일간 32만 관중 다녀가

16일 대단원 막 내려
대태백급-김해 흑곰,
대한강급-청도 화랑,
대백두급-함안 환타 각 우승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펼쳐진 전국 유일의 청도 소싸움 돐 경기장 축제장에 32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지난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도군은 17일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마음껏 펼쳐라! 뜨겁게 환호하라! 승리를 노래하라!」를 주제로 '2023 청도소싸움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이같이 밝혔다.

서갑용의 임해 ▶대한강급 청도 최진호의 화랑 ▶소백두급 청도 이승현의 여포 ▶대백두급 함안 하석구의 환타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청도군은 소싸움 외에도 축하공연, 마칭밴드 퍼레이드, 인형극, 마술쇼, 마임쇼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과 소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 전시회, 소싸움으로 특화된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4년 만에 개최된 청도소싸움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 성료돼 청도가 명실상부 소싸움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청도 소싸움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도록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한우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첫 시동'... 한 달간 실증 운행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교통복지 증진 기대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북도청 전정에서 도청 신도시 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운행에 맞춰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승 행사는 경북도의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한 도청 신도시에서 자율주행 단계(0~5단계) 중 3단계(조건부자동화) 기술 수준의 셔틀버스 시험운행 출발을 알리고, 실제 탑승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체감을 위해 마

련됐다. 道는 지난 1월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도청 신도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 이날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1대의 셔틀버스가 내달 16일까지 1개월간 주 5회(평일) 실증운행(도청~경북 개발공사, 8km 구간)할 예정이다.

영천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6월 9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영천시는 11일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 기여를 위해 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을 지난 10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영치반은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또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김효정 기자

북안면, 효리 박기남이장 첫 모내기

작년보다 10일 앞당겨져



영천시 북안면(면장 오영호)은 13일 효리 박기남이장 농가를 시작으로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박이장은 2020년 첫 모내기(5월 15일)보다는 약 1달가량 빠르고 작년 모내기(4월 22일)보다는 10일 정도 앞당겨 모내기가 진행됐다.

모내기는 약 3000㎡의 농지에 조생종인 해당쌀을 이앙했다. 해당쌀은 병충해가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높고 식감이 좋고 재

배기간도 짧아 7월 말경 수확해 8월 초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수 있다.

이날 모내기를 시작으로 관내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고 6월 중순경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민회관, 국·도비 1억 7000만 원 확보

매월 1회 공연 제공 약속

영천시는 시민 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이하 방방곡곡)과 '문화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재)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경북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다.

방방곡곡은 뮤지컬 '씨네티', 국립창극단 마당놀이 '신뎡파전' 등으로 선정된 공연 3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사업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무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추후 일정 공지)을 제공한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선정된 상주단체와 영천시민회관의 상생 협력으로 퍼블릭프로그램과 공연 2회를 선 보인다.

영천시민회관은 연간 기획공연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12~13개 작품을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관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영천, 청년 마을 선정... 금호읍 소물리에 마을

경북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영천시, 고령군 2곳이 선정돼 3년간 개소 당 6억원,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2개소 신규 선정으로 총 8개의 청년마을을 만드는 경북은 '전국 최다' 청년마을 조성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돼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과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로컬 지원 사업으

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8년 3개, 2021년 12개, 2022년 12개, 2023년 12개로 전국에 39개소의 청년마을이 운영된다.

올해는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총 161개 청년단체가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이 선발되고 이후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1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영천은 금호읍 일원에 「소물리에 마을」을 만들어 와인 경험 콘텐츠와 트렌디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체질을 제공하고, 기존 와인 산업 기반을 연결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서부동, KT 영천지점 업무협약 체결... 복지사각지대 복지 향상

영천시 서부동(동장 조명화)은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KT 영천지점(지점장 김희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T 사랑의 봉사단에서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도움 등 안부 확인을 하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또 관내 저소득 청소년가정에 IT 역량 정도, WIFI 접속 품질 상태를 확인하는 등 WIFI 구축으로 통신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KT영천지점은 서산동 축



사 운영 중인 한 농가가 통신 곤란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부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으로 무선기지국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무선기지국으로 축사 인근 2km까지 통화가 가능하다.

김효정 기자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10월까지 휴관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소장 양광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나섰다

이번 공사는 총 30억 원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사업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종합스포

츠센터가 휴관한다.

이번 공사에서는 수영장 바다방수와 타일, 창호 교체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와 신설 계획중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있다. 시는 이번 개보수 공사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선화여고 개교 37주년... 미래 선도할 인재 요람 명문 사학으로 우뚝

돈관 스님... 훌륭한 인재양성에 혼신 다하겠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천선화여고(교장 한승철)가 지난 17

일 개교 37주년을 맞았다.

이날 학교는 강당에서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학교법인 동곡학원재단이사장 돈관 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을 비롯한 최기문 영천

시장,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및 학생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선화여고는 1984년 학교법인 영도학원으로 출발해 1986년 첫 신



입생을 맞은 후 지역 최초 사립학교로 37년을 맞는다. 이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해 민족과 인류사회 공헌함을 건학이념으로 지역 인재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선화여고는 2010년 불교재단 학교법인 동곡재단과 인연을 시작하면서 지역 사학 명문으로 자리 잡았고, 2022년 9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12월 총 졸업생 6078명, 올해 입학생 113명으로 명실상부한 지역 사학 여고 명문고로 우뚝 솟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승철 교장은 "부처님의 용맹정진 자세를 본받아 다 함께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명문사학으로서의 지역 최고 입지를 다졌다"라면서 학생들에게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남을 사랑하는 배려와 존중으로 미래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이사장 돈관 스님도 이날 치사를 통해 '동곡가족'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일일이 참석 내·외 귀빈들을 소개했다. 또 돈관 스님은 "지혜의 숲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동곡가족이 된 선화인 한 명 한 명에 애정을 쏟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 영천시 전년도 결산검사 7일부터 26일까지

김종욱 의원-권혁희 세무사-김중호 前 영천시국장 市 전년도 예산사용 적정·효율·건전성 살핀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20일간 2022년 회계연도 영천시 예산 사용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위원은 김종욱 의원(대표위원), 권혁희 세무사, 김중호 前 영천시 도시건설국장등 3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26일까지 20일간 활동 후 영천시의회를

통해 집행부(영천시)에 그동안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집행부(영천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며, 영천시의회는 6월 12일부터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김종욱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영천시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선심·낭비성 예산

은 없었는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영천시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기태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집행부 지난 해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예산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영천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각오 밝혀

尹 대통령, "이 의원은 정부 정책 이해도 높은 적격자" 이 의원,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이끌 터"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을 끝으로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정책위원회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책위원회는 ▲당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당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당정책협의 업무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수석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국민

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당직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안게 되어 향후 정책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당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책임을 맡고있는 이 의원의 책임도 함께 크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지수 기자

국회 정책통으로 알려진 이만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가 당정간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가교가 되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생활형 정책 발굴을 위해 박대출 의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장지수 기자

기자수첩



장지수
기자

한다는 핑계로 강행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최기문 영천시장 공약사업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지역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 기존 800석 규모의 시민회관을 두고 200석 더 많은 1000석 규모 적자 투성이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립하기에는 지역 여건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회 주장과 충돌한 것이다.

의회로서는 1200억 원 거대 프로젝트보다 기존 문화시설들을 재정립해 사용하고, 군부대 유치 확정 또는 예술회관 운영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건립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립 예산의 의회 상임위 통과-예결위 통과-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 부결 수순이 충분히 예견되기도 남는다. 의원들 간에도 집행부 편들기와 국민의힘 집행부 견제하기가 눈에 훤히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 중에서도 특히 재선 위주로 집행부 편들기가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7대5 비율로 의회 내에서도 의원 간 갈등까지 심화하고 있다.

1200억 원, 그것도 순수 시비. 1만 원권 1톤(t) 화물트럭 12대분. 은행 계수기로 카운트하면 은행원 1명이 쉬지 않고 꼬박 24시간 세어도 20일이 걸리는 거금이다. 의회와 충돌이 있는 만큼 이 돈을 차라

리 불편한 도로 확장이나 생활 주변 민원 사업에 투입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특히 면 지역 농로 확장과 지지부진한 환경개선에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건립계획도 문제다.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 프로젝트인데도 시민 문화 욕구 충족과 공익차원의 설립 의지 외에는 미래 비전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23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에 고작 7억 원의 수입으로 매년 16억 원의 적자운영이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는 공공을 앞세우기에 역부족이다.

대규모 뮤지컬 공연에는 스태프들만 100~200여 명. 이들이 무대 설치와 철거에만 20여 일 걸리는데 먹고, 자고, 쉬 공간 등 주변 인프라는 사실상 전혀 없는 형편. 수백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뮤지컬이나 공연 유치도 사전 조사나 계획조차 없다. 건물만 지어 놓으면 저절로 올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겠다는 생각이다.

역지 건립 여론 조작 의혹도 가시다. 시민들과 문화인들이 요구한다는 걸 보여주더라도 하듯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찬성한다는 이름 모를 불법 현수막에 "반드시 건립 찬성에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폭탄 후 전화 여론조사 계획(조작 의혹으로 취소), 1200억 원 건립비용 추계 부실, 용역회사의 설문 조사의 뒤늦은 공개 등 시민을 등에 업고 최기문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 강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2018년 개관했던 공설시장 2층 별빛영화관(관람료 5~6000원)은 1000원~2000원짜리 영천시민회관 영화덤프와 수요 부족 등 경영악화로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올해 사회안전 지수 결과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도시 4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이라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토목·건설에만 60~100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경북 최대 사업인 통합 신공항 이전 배후도시 연계사업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영천시다. 최 시장이 연일 새벽 관공버스에 고개 숙이러 다닐 시간이 없다. 순수 시비 1200억 원을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회생, 시민생활의 밀접한 곳에 우선 사용하길 바란다.

지난 3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 누구도 영천시가 강행하려는 문화예술회관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영천시는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사안에 우리 市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면서 "순수 시비 1200억 원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권기환 의원의 외침을 최 시장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권기환 시의원의 일침에 귀 기울여야!"

최근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두고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와 영천시(시장 최기문)간 수면 아래서도 여전히 대립각이 날카롭다. 예산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영천시가 건립 강행 의지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해 오는 추경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이 글의 요지는 "나는 순수 시비 1200억 원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한다."에 방점을 찍어둔다.

영천시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원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⑨



임종택

◆오리장림의 뿌리 어원

영천(영천시청)에서 북쪽 보현산 방향 약 15km 거리에 오리장림이 나온다. 인근 지형과 지세를 보면 면봉산, 방각산, 봉림산이 위치해 있다. 천연기념물 404호 영천 화북면 자천리 오리장림의 오리는 거리 단위로 십리길마다 심었다는 시무나무와 같이 당시 마을에서 숲을 만들 때 오리 즉 2km나 되는 길이로 숲을 조성했다는 뜻이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노거수나 군락지 그 밖의 유형이 역사·학술·경관적 가치를 띠는 식물 문화재를 말한다.

오리장림이 근래에는 자천리라는 동네 이름을 따서 자천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전체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다. 국가 하천인 금호강의 제2 수계인 고현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동네 이름을 그대로 따서 고현천이라 하지 않고 자천천이라 부른다.

◆숲의 기능과 역할

오리장림은 1500년대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마을 앞을 흐르는 자천천이 홍수로 범람해서 농사를 망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홍수 방지 뿐만 아니라 제방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홍수 방지는 나무를 심어 물이 일시에 범람하여 농지 침수 뿐만 아니라 유속으로 인해 토석류가 농경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또 제방도 보호가 되는데 이 제방이 보호가 되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고 그 숲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사람의 왕래가 잦으면 숲은 휴식처가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답압으로 제방의 독이 점점 더 흙의 공극 사이가 작아지면서 단단히 다져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방 틈 사이로 흐르는 작은 세류로 인해 생기는 물기둥을 없애서 독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숲은 재난과 재해를 방지하는 일차원적 기능에서 지금은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장소이자 사계절 변화하는 수관부 앞의 변화를 볼거리로 제공해 주는 면에서 다차원적인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천연기념물 404호 자연자원 오리장림, 영천 랜드마크 만들어야!

인간의 미래 자연자원 오리장림
오리장림 둘로 쪼갰 불편한 진실
오리장림 복원이 꼭 필요한 이유
인간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숲'

◆오리장림을 나눈 길의 불편한 진실

얼마전 1월 말쯤 오리장림을 찾았다. 봄이 오는 소식을 느낄 수 없었지만 아쉬운 것은 숲의 한가운데 보현산 천문대로 향하는 마을 길이 숲을 반쪽으로 갈라 놓았는데 「천연기념물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의 원형 규명」이라는 연구서 임원현(2013) 교수는 현재 오리장림의 내외부 수목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비슷한 크기의 나무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역사적 근거를 들어 원형 복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연한 현안이다.

숲 가운데 길이 만들어져 숲은 둘로 쪼개지고 현재 보현산녹색체험터 자리가 자천중학교였는데 폐교가 되므로 이곳은 어린이들의 녹색 놀이터로 변모하여 영천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돌아간다. 당연히 체험터 공간이 재조성되면서 일부 오리장림 숲이 훼손되었다. 녹색체험터로 새롭게 탈바꿈한 자천중학교의 변신은 매우 적절한 시대적 산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오리장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방풍과 홍수 방지 기능을 넘어 문화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보림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 마을 역사와 문화와 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간직하고픈 마을 주민의 염원을 담은 숲이라는 점이다.

비보의 의미는 이곳 자천마을이 갖는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마을을 벗어나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다시말해 오래 전부터 정착한 마을의 부족한 풍수적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오리장림 수종, 21종 470여 본 존재

그렇다면 이곳 숲의 나무들은 어떤 종들이 살고 있을까. 현재 21종 470여 본이 자리하고 있는데 느티, 왕버들, 팽나무, 굴참나무, 상수리, 회화나무 말채나무 등 21종이



오리장림의 나무들

다. 초기 연구의 결과는 대략 12종으로 그동안 점진적 복구로 수종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주변 식생으로 구기자, 쥐똥나무 분꽃 등 다수가 있다. 낡은 시설물과 안내판 등은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할 것 같다. 마을 동체도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북면 면제를 보현산 쪽을 향해 지내고 있는데 이때 오리장림이 당 숲이 된다.

◆천연기념물 404호의 변신과 아픔

그 외 7월에 논매기가 끝나고 노는 회초와 서리초라는 풍습이 있다. 이때 힘겨운 논매기를 끝내고 한바탕 마을 잔치를 벌이는 행사다. 단오때는 인근 지역인 청송 사람들까지 이곳 오리장림에 와서 숲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것이 영천시의 국가지정 생물문화재이자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오리장림의 현주소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이제 오리장림도 숲의 원형을 되살려야 한다. 영천을 알리고 숲이 풍요로운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숲의 랜드마크적인 이

곳 오리장림의 변신이 절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숲이 길로 갈라지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잎의 변신이 주는 숲복지 혜택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이리저리 살펴서 건너편 숲으로 가야 하고 매연과 소음 문제 등 봄부터 가을까지는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오리장림 치유를 위한 제안

오리장림을 산림복지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첫째, 숲 가운데를 지나가는 도로의 우회 건설이다. ▲둘째, 도로를 우회 건설을 한 후 이곳에 있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넓어진 공간의 일부는 숲으로 복원후 데크를 설치한다. 데크는 뿌리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답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숲 사이로 나 있는 길 위에 좁은 관찰 데크를 설치해 뿌리를 답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뿌리 인근에는 지피 식물로 맥문동을 심어 경관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으로만 다닐수 있도록 나무의 안식년제를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무들은 보면 대체로 수령에 비해 노화 현상이 심하다. ▲넷째, 오리장림을 활용한 숲 치유와 숲 해설 공간으로 숲복지문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에 말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데크로 만드는 이유이다.

마르코 멘칼리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오리장림이 '치유하는 나무 위로하는 숲'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오리장림은 영천의 자연자원으로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 자연은 인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오리장림 가운데로 도로가 나있다



오리장림 내의 관찰길



오리장림의 중간으로 나있는 도로

일본 속에서 조선 역사를 찾는다 ⑭

일제 강제징용 영천지역 희생자 유족 찾아 나선다

본지 논설 김문길 박사... 4월 27일 화산교회서 문화대학 특강



김문길 박사

1942년 강제징용 영천인 피해자 15명 명단 발견 일본은 '자유도항', 한국은 '강제징용' 아직 논쟁 1942년 14세 이상 농민들 '강제징용' 해 갔다. 강제징용 조선인 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 침몰 '우키시마호' 폭발 침몰, 일본 의도적 폭파 의혹 '타이타닉호' 2223명, '우키시마호' 8000명 추정

들 피해자 조선 노무자의 실체를 더 파악 하고 있다.

김 박사가 찾아낸 이들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영천군의 주소지 지번까지 명확하게 기록됐고, 일부는 동리만 기록된 예도 있지만 이름은 일본명으로 일본식 성명을 강요한 터라 역순 하면 한국인 이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날 강연 후 고경면과 신녕

교 조선 침략』:철학 박사 논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일본 유학 때 선교사로 일하며 일본 속 한국 역사는 물론 일본 역사를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까지 김 박사가 고향 기독교인들과 소통하고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 8000명 승선한 강제징용자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

김문길 박사는 앞서 1945년 광복 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고국으로 향한 귀국선(상선을 군함으로 개조) 4703t급 우키시마호가 폭발로 침몰한 원인을 밝히는 문서를 찾아내 국내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우키시마호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교토 마이즈루만에서 폭발·침몰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이 바다에 매설한 기뢰에 의한 침몰로 규정했고 조선인 3752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 등 3980명이 승선해 이 중 조선인 524명,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김 박사는 일본의 의도적인 폭발을 의심하고 있다.

김 박사 등은 당시 우키시마호 승선 인원은 약 8000명이었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5000명, 생존자는 3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키시마호 일본이 의도적 폭침시켰나?

김 박사가 일본 지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발신전보철'이라는 일본 방위청 문서에 따르면 당시 우키시마호에는 폭발물(박격포 및 포탄)이 실려있었고, 또 폭발물을 해상투기한 흔적이 없으며, 일본 해군은 10%만 사망한 점, 일본 우키시마호 유족들이 1992년 일본법원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폭발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다는 증언 등을 들어 일본의 의도적으로 우키시마호를 폭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있다.

참고로 1912년 4월 15일 침몰한 타이타닉호 승선 인원은 2223명이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해방을 맞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조선인의 부푼 희망을 산산조각낸 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 승선 인원은 그 2~3배가 넘는 3980명~8000명으로 추정돼 세계 최대인원 침몰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본 속에서 한국 역사를 찾는다"는 명제 아래 2016년부터 줄곧 본지 논객으로 활동해 온 김문길(78) 박사가 이번에는 일제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영천지역 피해자 유가족 찾기에 나선다.

김 박사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산교회 초청으로 일제 강점기 영천지역 강제징용자 피해 규모와 그 실상을 밝히는 문화대학 특강을 실시한 후 이날 피해자 유족을 찾기 위해 당시 피해자 15명의 주소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 박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200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노무자로 일해왔다. 일본 정부 통계를 인용하면 김 박사는 당시 탄광에 노무자 60만 명, 군무원 공장 40만 명, 토목공사에 30만 명, 광산 노무자 15만 명, 향만공사 5만 명, 군인·군속 노동자 37만 명, 종군위안부 13만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 강제징용 대 자유도항

정치적 쟁점은 일본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 반대 논리다. 김 박사는 여기에 대해 1938년 만주사변(일본 전쟁 준비)후 일본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당시 조선노동자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자유 도항"을 했다면서 그러나 근로보다 돈이 되지 않자 당시 약 70%가 귀국을 원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당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전쟁물자 생산 등 많은 일력이 필요해 1940년도부터는 (일본) 정부 알선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는 핑계로 영천군 일대에서만 4차례 5~6000명을 권고 모집했는데 속수무득했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에 대다수 자유 도항 근로자들 70%가 귀국을 원했다는 기록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노동자가 더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은 1942년 이후 강제징용을 주장했고 반대로 일본은 1938년 조선인 자유도항만을 고집해 지금까지 정치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 강제 징용 피해자 영천인 15명

김 박사는 당시 1942년 총독부가 경북의 의성·군위·영천 등에서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노동자 중 영천인만 15명 정도로 현재 그 주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일본 탄광에서 일했는데 당시 근로 탄광이 바다 수면 아래에 있어 갑자기 물이 들어차면서 일순간 모두 익사했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李 相海。木村 相海	島本 永出	黄 吉秀。共田 吉秀	金 化祥。金本 化祥	朴 三郞。朴本 三郞	李 鏡鳳。岩本 鐘	李 鏡鳳。	金 又鎮。	共田 宏	朴 演慶。木本 演慶	方 成達。	金 成 教祚	平沼 德龍	金 村 至壽	金 村 文濟	平沼 光弼	
木村 順乘	島本 外順	共田 點粉	金本 分進	朴 武兼	岩本 弓綠	李 鏡涯	金 鳳岐	共田 廣蘭	木本 台順	方 錫龍	金 成 鳳述	金 村 文濟	慶尚北道迎日郡積口面芝浦洞七五六	慶尚北道迎日郡積口面芝浦洞七五六	慶尚北道迎日郡浦項市海島一洞四一四	
父 慶尚北道迎日郡襄面方輿里一八八	妻 慶尚北道迎日郡延日面孝子洞四四八	妻 慶尚北道高靈郡高靈面本館九八	妻 慶尚北道清道郡華陽邑上坪里五五六	妻 慶尚北道大城面釜也里七二六(清道郡)	妻 慶尚北道永川郡琴湖洞三九三	父 慶尚北道永川郡公德洞四〇一(永川郡)	妻 慶尚北道永川郡華南面温川洞一八	母 慶尚北道永川郡華南面三昌洞二六五	妻 慶尚北道永川郡華北面守川洞五九二	妻 慶尚北道永川郡華南面安川里八七四	妻 慶尚北道永川郡岳漁面谷洞四五八	兄 慶尚北道八一五 迎日郡積面芝浦洞	父 慶尚北道迎日郡積口面芝浦洞七五六	妻 慶尚北道迎日郡浦項市海島一洞四一四	妻 慶尚北道迎日郡浦項市海島一洞四一四	妻 慶尚北道迎日郡浦項市海島一洞四一四

김 박사의 일본에서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영천 징용자가 일해 온 바다 수면 아래 탄광은 일본 장생탄광으로 밝혀졌다. 야마구찌 우베시에 있다. 탄광이 무너지면서 1942.4.3 183명이 모두 일순간 익사했다.

이 사망자 중 130명은 조선인이고 53명이 일본 노무자로 확인되고 이들 사망자는 아직도 사고 현장 바다에 묻혀있다. 이들 중 영천지역 노무자 1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81년 지난 강제징용 현장 남아 있어

현재 땅 소유주가 개인이고 조선인 숙소 등 건물은 일본 정부 소유인 까닭에 법적 분쟁으로 지금까지 폐허가 된 조선인 숙소와 탄광이 그대로 남아 있어 김 박사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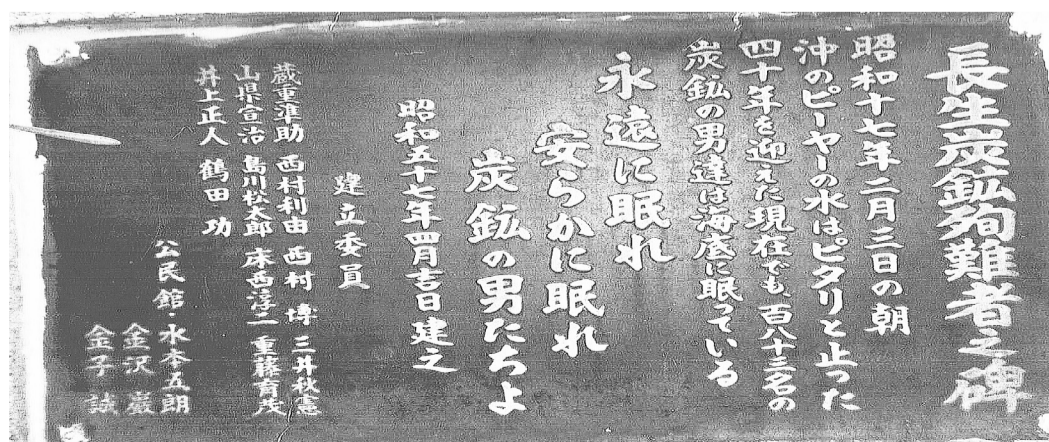
면, 임고면, 영천시청에 들러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 주소지 유가족 찾기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문길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 후 곧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지금까지 일본 속에서 한국 역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교토 대학(국립대)에서 한일역사를 연구하고 국립 고베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역사분야: 학술박사) 취득 후 줄곧 우리 민족의 문화·역사 발굴에 심취해 왔다.

◆ 영천피해자 유족 찾는다

고향이 영천인 김 박사는 늦었지만 강제징용 영천 피해자 유족을 찾는데 이제 영천 시민들이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화산교회 초청 특강도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김 박사로서는 당시 『일본기독





제61회 경북도민체전 21일 울진서 개막... 영천 21개 종목 417명 참가

17일 결단식, 필승의 결의 다져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오는 21일 울진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 12년만에 군부 개최 두번째로 시부 30종목, 군부 16종목에 3만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해

울진군내 3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는 지난 17일 영천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개최하고 시부 21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417명을 출전시켰다.

영천시선수단의 경기일정은 ▲육상 22~24일/울진종합운동장 ▲레슬링 22~23일/백암한화콘도 강당 ▲배구 21~34일/울

진고,부구초 체육관 ▲보디빌딩 22~23일/울진문화예술회관 ▲우수 22~24일/울진초 체육관 ▲탁구 21~24일/흥부생활체육관 ▲태권도 22~24일/울진국민체육센터 ▲합기도 22~23일/온정중 체육관 ▲유도 21~22일/후포고 체육관 ▲배트민턴 21~24일/울진군민체육관 ▲족구 22~23일/울진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산악 22~23일/포항국제클라이

밍장 ▲수영 22~23일/김천실내수영장 ▲승마 22~23일/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사전경기는 검도, 골프, 궁도, 복싱, 볼링, 축구, 테니스 등 7개 종목으로 이중 궁도가 종합 2위, 축구가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뒀다.

박한우 기자

영천시청 태권도단, 전국대회 단체 금남자부 5인조 단체 1위

영천시청태권도단(감독 명재진)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다.

남자 2인조 단체전에서 이준호 선수와 올해 영입된 임홍섭 선수가 1위를, 작년 대회에 이어 5인조 단체전도 1위를 차지하는 등 2연패 결과를 달성했다.

또 개인전 경기에서는 박상훈(-87kg) 선수가 금메달, 이준호(-68kg)·김경덕(-74kg) 선수가 은메달, 조성호(-63kg)·이상준(-80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해 남자부 종합 준우승, 여자부에서는 조혜진(-53kg)·김유리(-57kg)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태권도단 전체가 우수한 성적이다.

시태권도단은 올해 강보라·강미르 2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캐나다 오픈태권도대회, US 오픈태권도대회 등 국제대회에서도 우수 성적을 거두는 등 국내 전국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효정 기자

경북영광학교 탁구부,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성적 우수

단식 금2, 동1, 장려1, 복식 은1, 동1

경북영광학교(교장 강진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영남지역대회' 탁구종목에 수상 소식을 지난 14일 전했다. 김효정 기자



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전국 지자체 현황조사

상위 30위 평균 모금액 1억 4100만원, 월평균 296건 모금액·기부건수 1위 전북 임실 최하위 부산 중·서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23년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기부 건수, 답례품 현황 등을 전국 17개 시·도청을 통해 228개 시·군·구 중 모금액 실적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82곳)를 제외한 나머지 140곳의 지자체 데이터를 취합(공개율: 61.4%)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 임실군이 3억 1500만원을 모금하고 기부 건수는 941건을 기록해 응답한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으며, 영천시와 문경·점촌시를 제외한 예천·의성·경주·안동·영덕·상주·김천·고령·성주·경산·구미·포항시 등 경북권 지자체 12곳이 상위 30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제공 기준으로 상위 30위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답례품 상위 30위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 순위에도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이 모금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과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경남 창원시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동 조사에서 약 45곳의 지자체는 해당 체험형 답례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촉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부처인 전국 지자체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전자고, 경북 軍 특성화고 5개... 통합 발대식

영천전자고등학교(교장 권철환)는 지난 17일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군(軍) 특성화고등학교 통합 발대식'에 참여했다.

경북지역 군 특성화고로 영천전자고, 신라공고, 경북하이텍고, 경북항공고, 한국국제조리고 5개 학교에서 8개분야, 1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영천전자고등학교는 2020년도에 해병대 정보통신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돼 전기전자과와 항공전자과로 나뉘 진다.

또 군(軍) 첨단기술 관련 전문기능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 체력단련 외에도 방과후 수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정보기술자격 등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e-MU(Military University) 과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은 물론,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희망에 따라 전역해 국방부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 해병대사령부 인력획득과장 채세훈 중령, 육군포병학교 포술2교육단장 이경원 대령, 50사단 122여단장 신성 대령, 해병대1사단 행정부사단장 최윤영 대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 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가압류·가처분의 정의
이의신청, 취소신청
집행 취소(해제)신청
손해배상청구

문 저는 처와 성격상 이유 및 시집과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 전에 저의 소유 주택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가압류나 가처분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보전절차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묶어 놓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특정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 자체를 보전하거나 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지위를 임시적·잠정적으로 정하기 위한 보전절차다.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된다.

첫째,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가압류·가처분결정이 변론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에게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입니다. 이에 대한 취소신청이란 보전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하한지 그 당시의 일은 일단 덮어두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당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셋째, 가압류·가처분집행에 대한 취소(해제)신청이다. 앞서 본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과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가압류·가처분집행에 대한 취소(해제)신청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자체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에 반하여, 후자는 처분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를 실효(예,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등기 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넷째, 손해배상청구다.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변호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윤영민 회계문답]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매입자가 판매자 대신 세무서 신고로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제도
반드시 매입 입증자료 제출해야
부가세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판매자)세금계산서 가능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더라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인을 해줄테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기로 한다면 당장에는 현금지출이 적어서 좋지만, 나중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본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사실은 매입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달 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가 1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공급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반면에, 매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위기의 전경련과 '기업가 정신' 문익점(文益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부문은 민간 중심 경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63년 역사의 전경련은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탈퇴한 상태다.

전경련 재건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5~6개월 조직 기조만 다듬고, 이후에는 재계인사가 말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환골탈태한 전경련의 괄목상대(刮目相對)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인류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하는 곳이다.

'기업가 정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꿈을 추구하는 혁신과 도전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 보다 크게 요청된다.

IMF 사태나 금융위기도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잘 이겨냈던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진입에 크게 이바지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기업은 지속적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 이해당사자들의 만족 극대화에 진력하는 '기업의 새로운 책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를 씻어낼 수 있고 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수 있다.

삼성 이병철, 포스코 박태준 등 1세대 창업주들이 평생 가슴에 품었던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과 '제철보국(製鐵報國)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업가 정신의 발현은 목화의 대중화에 성공한 고려 말 문익점(文益漸, 1329~1398)에서 찾을 수 있다.

환골탈태 전경련 괄목상대 기대한다
'기업가 정신' 없이는 미래도 없을 것
우리 역사 최초 기업가 정신 문익점
'목화', 고려인 '의복혁명' 삶의 변혁
문익점 '선국후사(先國後私)' 정신
오늘날 기업 '동반성장', '사회공헌'

문익점은 목화재배와 면포 생산 보급의 선구자로 여말 선초의 한반도에 신산업을 일궈낸 위대한 선각자였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일신(日新)이다. 호는 삼우당(三憂堂)으로, 나라의 운수와 성학(聖學)의 발달과 자신의 학문이 부진한 세 가지를 근심한다는 뜻이다.

1329(충숙왕 16)년 경남 산청에서 문숙선의 아들로 태어나,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했다. 1363년 사간원 좌정언으로 있을 때 서장관이 되어 계품사 이공수를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목화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다.

문익점은 뱃속까지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일관한 삶을 영위했다. 그는 '목화'는 고려인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신상품이라는 가치를 꿰뚫어 본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살을 에는 북풍한설의 추위를 변변한 방한복 없이 견뎌야 했던 고려인들은 '의복혁명'으로 삶의 변혁을 맞이했다. 목화는 솜과 의복의 재료를 넘어 화승총의 심지, 갑옷, 돛단배의 돛, 천막, 심지어 화폐로도 쓰였으며, 면포는 조선의 국제무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품목이었다.

문익점은 목화에 대한 독점적 지위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백성들에게 목화씨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재배기술과 생산기술 등의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했다. 문익점의 '선국후사(先國後私)'의 선비정신은 오늘날 기업인의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의 기업가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익점은 69세로 타계했다. '목화혁명'에 대한 공이 매우 커서 세종은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로 추증했고, 시호는 충선공(忠宣公)이다. 영원한 거래의 은인이 된 삼우당 선생을 경모하는 필자의 자작 한시를 소개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제33회 단포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3년 4월 30일(일) 10:00 ☐ 장 소 : 모교운동장 (우천시 체육관)

고 문	이종두	직전회장	김진식	감 사	김대원	기별회장단					
	윤태근	회 장	김홍철		이진홍	15회	김혁주	21회	박추하	27회	김상철
	이희옥	수석부회장	최병호	사무국장	이창희	총무	김용주	총무	이상기	총무	김정숙
	임상원	부 회장	이경윤	사무차장	손은익	16회	이종활	22회	이경윤	28회	이천희
	이국웅		정동한	기획부장	이천희	총무	백화태	총무	이현숙	총무	김민경
	김영우		김규태	재정부장	김민경	17회	김상원	23회	정동한	29회	이종근
	김병하		이규원	체육부장	오상도	총무	백순희	총무	정금선	총무	전재미
	오현섭		김상용	심판부장	이종근	18회	조문현	24회	김규태	30회	손은익
	이순희		김상철	봉사부장	손은익	총무	한윤식	총무	이영숙	총무	백환수
	윤지원			의전부장	전재미	19회	박준석	25회	이규원	31회	백용걸
	김혁주			홍보부장	백환수	총무	허정열	총무	정춘화	총무	최상곤
	조희석			섭외부장	백용걸	20회	오호원	26회	김상용	32회	이태희
				포상부장	최상곤	총무	이동순	총무	이병채	총무	장영리

회장 김홍철 : 010-2512-2608 / 사무국장 이창희 : 010-010-2522-1190 / 사무차장 손은익 : 010-5376-6582



경 창녕조씨 영천종친회 유적지순례 및 제34차 정기총회 축

♣ 일시 : 2023년 4월 23일(일) 8시 완산동 고수부지 동시출발 ♣ 장소 : 산청, 고령
 ♣ 전세버스 1호 : 금호, 2호 : 대창, 3호 : 화남, 4호 : 화북, 5호 : 고경·임고·신녕·청통·동 → 고수부지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창녕조씨 영천종친회 일가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유적지순례 및 제34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후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사무국장 010-9776-4155

고 문	조규창	운영위원	조수태(금호)	운영위원	조두호
"	조태현	"	조성현 "	"	조규영
"	조영철	"	조희용 "	"	조규진
자 문 위 원	조희준	"	조윤호 "	"	조문현
이 임 총 회 장	조성호	"	조원호(대창)	"	조창호
취 임 총 회 장	조규수	"	조윤식 "	"	조희철
운 영 위 원 장	조녹현	"	조수택 "	"	조희도
감 사	조신환	"	조수철 "	"	조 순
"	조희석	"	조희물(고경)	"	박정순
사 무 국 장	조규수	"	조한호(임고)	"	조명재
사 무 차 장	조주철	"	조종현(화산)	"	조달호
재 무 국 장	조분태	"	조기환(화남)	"	조광현
재 무 차 장	조승목	"	조문찬 "	"	조명화
청 년 회 장	조인호	"	조인호 "		
딸 내 부 장	조경희	"	조왕호 "		
며 느 리 부 장	김순화	"	조태홍(화북)		
		"	조영록 "		



- 메뉴 소개**
- 돼지국밥 사태수육
 - 순대국밥 뽕향정수육
 - 내장국밥 순대, 사태수육
 - 섞어국밥 순대, 향정수육
 - 살코기국밥(등심)

오전 11:00 ~ 오후 14:00시 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리겠습니다.

054.331.7773
 전미라 / 010.3047.8066

BREAK TIME
 14:00 ~ 17:00



통기타 라이브
 매주 금/토 20시 부터 22 시까지

영천의 낭만과 추억이 있는곳!
 술도가에서 함께 하세요!

술도가 OPEN
 PM. 5시 ~ AM. 12:00까지

054.331.7773
 전영국 / 010.4530.7620